



몸과 마음에 스며드는 온기, 제주 온수 풀 여행

찬 바람이 매서운 1월, 육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국적인 풍경 속으로 짧은 힐링 여행 떠나는가. 여행지는 바로 제주의 숨은 보석 '히든 클리프'. 온수 풀인 '인피니티 풀'은 180만 년 된 울창한 원시림을 바라보며 절묘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풀사이드 바에서는 물놀이 후 출출함을 달래줄 다양한 스낵과 칵테일, 와인 등의 주류까지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매일 아침이면 안개처럼 피어나는 수증기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색 풍경도 감상할 수 있다. 낮에는 유유자적 수영을 즐겼던 풀이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진다.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DJ와 함께 하는 신나는 '풀 파티'가 열린다는 사실. 투숙객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만끽할 수 있는 히든 클리프만의 선물이다. 감각적인 음악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춤을 추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마지막

코스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쌓인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제주도 유일의 록시땅 스파 '릴 스파 바이 록시땅'이다. 프랑스 남쪽 드롬 지방의 피어니(작약) 꽃을 주원료로 만든 오일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피어니 라인'을 사용하는 100% 핸드 마사지 스파 프로그램이 겨울 힐링 여행의 묘미를 완성시켜준다.

문의 히든 클리프 호텔&네이처 02-2277-9999